



## [이공계 기피현상 대책 마련 시급] 과학영재 10명중 3명만 이공계 진학

2012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중 28.2%만 이공계 진학

2011년 서울 주요대학 전체 자퇴생중 이공계만 70% 육박

□ 민병주의원(새누리당,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)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‘최근 5년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계열별 진학 현황’에 따르면,

- 최근 5년간 참가자 200명 중 152명(76%)이 국내 대학을 진학하였으며, 그 중 98명(49%) 이공계 진학, 46명(23%)는 의·약학계로 진학하였음.
- 최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의 국내 대학 진학률이 2011년 58.5%, 2012년 51.3%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, 그 중 이공계 진학률은 2011년 36.6%, 2012년 28.2%로 급격하게 줄어 과학영재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
\* <표1. 최근 5년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계열별 진학 현황> 참조

<표1. 최근 5년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계열별 진학 현황>

(단위 : 명, %)

참가연도	진 학 자						미진학자		합 계
	의약학계		이공계		기 타				
	인원	비율	인원	비율	인원	비율	인원	비율	
2008	12	30.0	25	62.5	3	7.5	0	0.0	40
2009	12	30.0	24	60.0	2	5.0	2	5.0	40
2010	6	15.0	23	57.5	1	2.5	10	25.0	40
2011	8	19.5	15	36.3	1	2.4	17	41.5	41
2012	8	20.5	11	28.2	1	2.6	19	48.7	39
합계	46	23.0	98	49.0	8	4.0	48	24.0	200

\* 출처 : 미래창조과학부

- 또한, 한국교육개발원 「교육통계연보」의 “2011년도 서울 소재 5개 주요 대학(서울대, 고려대, 연세대, 한양대, 성균관대)의 자퇴율 현황”을 살펴보면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율이 비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율에 비해 최대 4배 높게 나타남.

<2011년 서울소재 5개 주요 대학 자퇴율 현황>

(단위 : 명, %)

대학	재학생수			자퇴생수						전체 자퇴생중 이공계 비율
	전체	이공계	비이공계	전체 자퇴생수	자퇴율	이공계 자퇴생수	자퇴율	비이공계 학생수	자퇴율	
서울대	21,776	10,230	11,546	138	0.63%	108	1.06%	30	0.26%	78.26%
고려대	28,293	11,666	16,627	205	0.72%	136	1.17%	69	0.41%	66.34%
연세대	26,555	10,526	16,029	202	0.76%	158	1.50%	44	0.27%	78.22%
한양대	22,802	11,422	11,380	253	1.11%	166	1.45%	87	0.76%	65.61%
성균관대	28,087	11,552	16,535	345	1.23%	212	1.84%	133	0.80%	61.45%

\* 출처 : 미래창조과학부

- 민병주 의원은 “지난 5년간 시행된 정부의 강력한 이공계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들의 이공계 기피와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이공계 육성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.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인 창조경제 성공을 전인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올바른 이공계 육성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” 고 지적하며,
- 이를 위해, “이공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의 고급관료 육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이공계 인력들이 우대 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” 고 강조하였다.